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흔들리는 위안에 되살아난 靑 통화 우려
 - ◇ (초점)-美 커브 플랫 vs 연타석 추경 우려..원화채 커브 향방은?
 - ◇ (시장진단)-美 시장과 달리 '패닉' 없는 서울 시장.."전쟁 가능성 작아"
 - ◇ 외시형, 역외 원화 차입 여부 논의 지속..5월경 구체적 제도안 나올 수도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반군이 지배하는 도네츠크시에서 주민이 대피 차량에 오르고 있다. (로이터/알렉산더 에르모첸코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1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195.9	0.2%	-0.6%	-8.6%	유로	1.1323	-0.2%	-0.4%	-6.9%
100엔 대비	1,039.3	0.0%	-0.6%	+1.8%	엔	115.03	0.3%	0.1%	-10.3%
유로 대비	1,353.7	0.6%	-0.1%	-1.9%	위안	6.3257	0.5%	0.5%	+2.7%
위안 대비	189.00	-0.1%	-1.0%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4,079.18	-1.9%	-6.2%	+18.7%
코스피	2,744.52	-0.1%	-7.8%	+3.6%	나스닥	13,548.07	-1.8%	-13.4%	+21.4%
코스닥	881.71	0.5%	-14.7%	+6.8%	S&P500	4,348.87	-1.6%	-8.8%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621.10	-0.6%	-1.4%	-4.9%
국고채 3Y	2.322%	-2.1bp	52.4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2.510%	-5.4bp	49.9bp	+67.6bp	미국채 2Y	1.470%	-2.0bp	74.0bp	+61.0bp
국고채 10Y	2.728%	-1.9bp	47.8bp	+53.7bp	미국채 10Y	1.930%	1.0bp	42.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91.66	-2.4%	21.5%	+55.8%	한국 5Y	27.8bp	1.2bp	5.8bp	-0.7bp
금(현물)	1,898.30	2.0%	3.8%	-3.6%	일본 5Y	17.6bp	0.0bp	0.0bp	+2.1bp
TR상품지수	3,294.59	0.1%	-1.3%	+24.6%	중국 5Y	53.1bp	1.5bp	11.9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2월 21일(월)>

- 관세청, 2월 1-20일 수출입 동향
- 기재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연례회의 실시 (09:00)
- 한은, 1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22일(화)>

- 한은,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한은, 2021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12:00)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5:00)

<23일(수)>

- 한은,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한은, 2021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 기재부, 부총리 울산 석유비축기지 현장방문 (14:00)
- 통계청,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1년 12월 인구동향, 1월 국내인구이동(12:00)

<24일(목)>

- 한은, 1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금감원, 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금감원, 2021년 12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금통위 정례회의(09:00) 및 총재 기자회견 (11:20)
- 통계청,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 한은, 경제전망(13:30)

<25일(금)>

- 기재부, 부총리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면담(10:00)
- 한은,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한은, BIS 아시아 그린본드 펀드 참여(12:00)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14:00)
- 기재부, 부총리 경제 점검 전문가 간담회(14:00)
- 기재부,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면담 (16: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2월 21일(월)>

- 일본 2월 지분은행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09:30)
- 중국 2월 대출우대금리 (10:15)
- 중국 1월 주택가격 (10:30)
- 유로존 2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휴장

<22일(화)>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2월 서비스업 경기전망 서베이 (22:30)
- 미국 12월 FHFA/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3:00)
- 미국 2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 미국 2월 소비자신뢰지수 (자정)

<23일(수)>

-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 발표·기자 회견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일본 휴장

<2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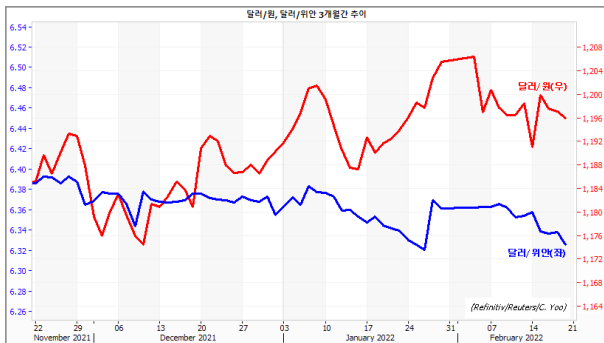
- 미국 1월 건축허가 수정치 (22:00)
- 미국 4분기 GDP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월 전미활동지수 (22:30)
- 미국 1월 신규주택판매 (자정)

<25일(금)>

- 미국 2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01:00)
- 일본 2월 도쿄 CPI (08:30)
- 유로존 1월 총 유동성(M3) 증가율·가계대출 (18:00)
- 유로존 2월 기업환경지수·경기체감지수·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19:00)
- 미국 1월 개인소득·PCE 물가지수·내구재주문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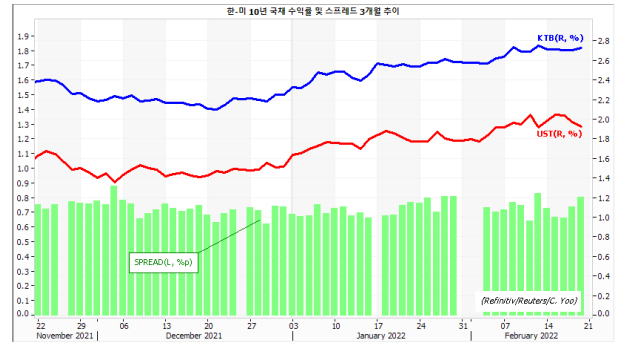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 따라 오르내리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90-1210 원이다.
- 동유럽 지정학적 불안이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긴장이 쉽게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압도적이지는 않다.
-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에 대한 방향성은 한층 애매해졌고, 변동성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 크게 줄거나 아니면 갑자기 확대되는 등 대응이 쉽지 않은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 시장 참가자들은 지정학적 불안 완화 기대에 좀 더 무게를 실으면서 짧은 쏏 대응에 나서려는 조짐도 있지만, 저점 매수 심리를 꺾어놓지는 못하고 있다. 역내 결제수요도 단단하다.
- 이번 주 환율은 전주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 쏏 커버로 인해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폭을 키울 여지는 있다.
- 대내적으로 주목받는 재료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다. 세 차례 연속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글로벌 긴축 기조 속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 우려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금통위 스탠스는 챙겨봐야 할 변수다.
- 이번 주 나을 국내 경제지표로는 이달 20 일 기준 수출입 현황과 무역수지(잠정), 1 월 거주자 외화 예금, 2021 년 국제투자대조표, 1 월 생산자물가지수 등이 있다.
- 해외 경제지표는 유로존 1 월 소비자물가, 미국 1 월 PCE 물가 등이 있고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1 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정부안보다 3 조 5 천억원 늘어난 수준에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채권 매수 심리가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로 치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 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공을 결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수일 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 한은 금통위는 오는 24 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된다. 기준금리를 그동안 세 차례나 인상한 상황에서 인상의 효과를 가능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총재가 매파적 스탠스를 일부라도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 다만, 채권시장은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빠르게 반영해 왔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못한 건 추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민주당은 정부안인 14 조원에서 3 조 5000 억원을 증액해 21 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여당과 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향후 재정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아직은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이다.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계산식이 복잡해지기도 한다.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채권 금리까지 감안할 때 일단 안도 랠리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듯하다.

(초점)-흔들리는 위안에 되살아난 亞 통화 우려

싱가포르/벵갈루루, 2월 15일 (로이터) - 위안 가치가 근 4년 만의 최고치에서 후퇴하면서 이제 안정기가 끝나고 아시아 통화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견실한 수출과 통화 보유고, 그리고 꾸준한 위안 이 선진국 금리 상승시 보통 나타나는 대대적인 자금 유출로부터 아시아 신흥시장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연내 미국 금리가 7번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중국의 경제 모멘텀 둔화와 정책 완화는 위안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웠고,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웃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이다.

클라우드 피아온 파이론 은행오브아메리카증권 아시아 채권 공동헤드는 "위안이 2021년 아시아 통화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달러보다도 두각을 보였다"면서 정책 역풍으로 올해는 달러당 6.70으로 5% 가량 절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위안 절하는 특히 원화와 대만달러 등 아시아 통화들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7일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하면서 7개월 만에 가장 큰 매도세를 겪는 등 위안에 변동성이 돌아왔다. 위안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달러당 6.36 정도로 보합세다.

대만달러의 오랜 켈리도 중단됐고,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씨티프라이빗뱅크 켄 평 투자전략 헤드는 "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위안을 떠받쳤던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채권으로의 유입이 이미 급격히 줄었고 무역 흑자도 기록적인 수준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달러/위안이 올해 6.50까지 상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채권 외국인 보유액은 지난달 4000억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12월 이후 중국과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가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유입이 둔화되고 있다.

안정적인 위안은 강력한 중국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내 근본적인 힘의 한 축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이는 경쟁적인 통화 절하 필요성을 줄여주어 아시아 수출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당국은 양방향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5년 경제 부양을 위한 평가절하나 2018년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절하 등 과거 위안 약세는 태국 바트, 말레이시아 링깃, 인도네시아 루피아, 싱가포르달러 등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미들 코테차 TD 증권 신흥시장 전략가는 "위안 변동성이 커지면 중국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줄고 아시아로의 전반적인 흐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의 대외 자본 통제가 강화돼 2015년처럼 지역내로 전파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자금 유입이 줄면 필리핀과 태국이 가장 취약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위안은 절하되기보다는 켈리를 중단한 상태이고, 인도네시아 등 지역내 고위험 국가들도 눈에 띄게 탄력적이라 루피아가 5개월 만에 17% 절하됐던 2013년 신흥시장 대혼란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실제로 씨티의 평은 위안으로 인한 압력보다는 국내적 요인들이 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BofA의 파이론은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결국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플레이션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경제에 주는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선물시장이 예상하는 정도로, 혹은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한다면 압력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지난 달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점)-美 커브 플랫 vs 연타석 추경 우려..원화채 커브 향방은?

서울, 2월 15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보다 신속하고 공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곡선(커브)이 빠르게 플랫되면서 향후 원화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차이를 감안할 때 양국 커브가 완벽하게 동조화될 수는 없겠지만 큰 흐름에선 원화채 커브가 미국 국채 커브를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 새 정권 출범과 함께 다시 2차 추경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커브의 방향을 예단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美 국채 커브의 '경기침체 예감'

14일(현지시간) 뉴욕장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 중 2.026%까지 상승한 뒤 거래 후반 직전 일보다 3.6bp 오른 1.988%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는 1.581%로 6.4bp 상승했다.

이번에도 국채시장을 흔든 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다. 지난주에 3월 50bp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시장을 뒤집었던 그는 이번에 CNBC 방송에 출연해 거듭 신속한 금리인상을 촉구했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이날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로 축소된 뒤 거래 후반 40.5bp를 가리켰다.

블라드 총재의 발언 이후 시장의 3월 50bp 인상 기대는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연준의 긴축 가속 전망과 함께 향후 경기침체 전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년/10년 커브의 선행 지표로 평가되는 7년/10년 미국 국채 커브는 이미 역전됐다. 그동안 미국 국채 커브의 역전은 시장에서 경기침체의 전조로 평가돼 왔다.

2023년과 2024년 포워드 오버나잇인덱스스왑(OIS) 커브나 유로달러 선물 시장의 스프레드상에는 내년부터 2025년 중 금리인하 가능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된 현 시점에 시장은 벌써부터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격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 원화채 커브 향방 '추경 규모 불확실성 해소'에 달려

관건은 미국 국채 커브가 원화채 커브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은 이미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단기금리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지만 향후 물가 경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포지션 구축도 쉽지 않다.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기둔화 전망에 기댄 커브 플랫트너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운용역 입장에선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걸 확인할 때까지 커브 플랫트너에 기댈 수 있다면 나쁠 게 없기도 하다.

문제는 3월 대통령선거 이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 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추경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문제다.

A 외국계은행 트레이딩헤드는 "원화채도 더 플랫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가는 이유는 추경 때문"이라며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새 정권이 추경 카드를 또 꺼내들면 채권시장에 다시 한 번 큰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커브 스틱을 잡기에는 물가 불안이 워낙 크다"며 "우리는 커브 전략으로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3월 대선 이후 재정 지출 확대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진단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향후 정부 재정지출과 관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확인되면 결국 원화채 커브도 미국 국채 커브에 연동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B 국내은행 스왑딜러는 "추경 부담만 없다면 원화채 장기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장 통화정책 정상화 부담감이 크더라도 커브만 플랫되면 도망갈 구멍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결국 커브의 방향은 플랫이 될 것"이라며 "올해 최대의 승부처는 커브 플래트닝이 나타나는 시점을 잘 타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진단)-美 시장과 달리 '패닉' 없는 서울 시장.. 전쟁 가능성 작아"

서울, 2월 18일 (로이터) 이지훈 · 박예나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증시가 폭락했지만 국내 주식 및 외환시장에서는 패닉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비교적 절제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18일 오전 코스피는 초반 최대 1.2% 하락한 뒤 10시 36분 현재 약 0.3%로 낙폭을 줄였다. 간밤 뉴욕장에서 다우존스산업지수 1.8%, S&P500 지수 2.1%, 나스닥종합지수 2.9% 하락에 비해 선방하는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반응도 크지 않다. 같은 시각 달러/원은 전 거래일 증가 대비 보합 수준인 1197 원 선에서 거래됐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실제 전쟁 발발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외교적 형태로 풀어나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차분하게 지켜보는 모습이다.

▲ 주식시장 "선반영" 인식

이날 코스피가 간밤 미국 증시 폭락에 비해 선방하는 데는 전날 우크라이나 내 포격 보도를 먼저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구실을 만들고 있다면서 수일 내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시장 긴장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친러시아 반군에 대해 포격했다는 러시아 국영 통신 보도를 가리킨 것으로 전날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된 내용이다.

코스피는 전날 최대 1.5%까지 상승폭을 키우다 우크라이나 내 포격 보도에 출렁인 뒤 0.5%로 상승폭을 줄여 마감해 고점 대비 상승폭을 1% 반납했다.

전날 0.8% 하락했던 일본 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에도 약 0.8% 하락하고 있다. 1월 FOMC 의사록 호재를 반영한 코스피와 다르게 전날 오전 약보합권 수준에서 등락하던 닛케이지수는 포격 보도 이후 낙폭을 확대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장은 "전날 포격 보도 이후 코스피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일부 반영했다"면서 "미국 증시 급락은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최근 풋 옵션이 많이 쌓였던 데 따른 수급 영향도 함께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지만 미국 외교장관,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등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외환시장도 차분

달러/원 환율도 전날 시장 출렁임에 일시적으로 1200 원 위로 치솟았지만,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환율 레벨 자체를 끌어올리는 재료로는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달러/원 환율은 전날 우크라이나 내 포격 보도가 있기 전 1194 원 선까지 지속적으로 놀리다, 결국 약보합 수준으로 되돌려 마감했다.

간밤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에도 달러지수는 보합권에 최종 마감한 가운데 달러/원은 이날도 1190 원대 후반에서 방향성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긴장이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게 점치면서 단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환율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재료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우크라이나 이슈는 외교적 기싸움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시장도 이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슈 전개 상황에 따라 숏 커버가 나오면서 환율이 반응할 수는 있다"면서도 "메인 테마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시협, 역외 원화 차입 여부 논의 지속..5월경 구체적 제도안 나올 수도

서울, 2월 18일 (로이터) -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최근 외환 거래 시간 연장과 해외기관 참여 확대 방안 등 외환 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시장 참가자들에 따르면 17일 외환 당국자와 일부 시중은행과 외은 지정 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정부가 밝힌 외환시장 선진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최대 시장 화두인 역외 원화 차입 허용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원화 차입에 대해 역외 원화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시장 변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외은 지정 존립 근거가 약해질 수 있는 점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당국은 과거 공매도에 따른 시장의 투기적 공격이 현실화됐던 사례 등 시장 안정 측면에서 역외의 원화 차입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해외 투자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원화 자산의 최종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차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인포맥스 TV에 출연해 역외의 원화 차입 허용과 관련해 "이 문제는 새로운 과제로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다.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외환시장 참가자와 외은 기관과 상의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외환 당국은 현재로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위치 리스트를 발표하는 6월 이전 5월경 조금 더 구체적인 원화 제도 변경에 대해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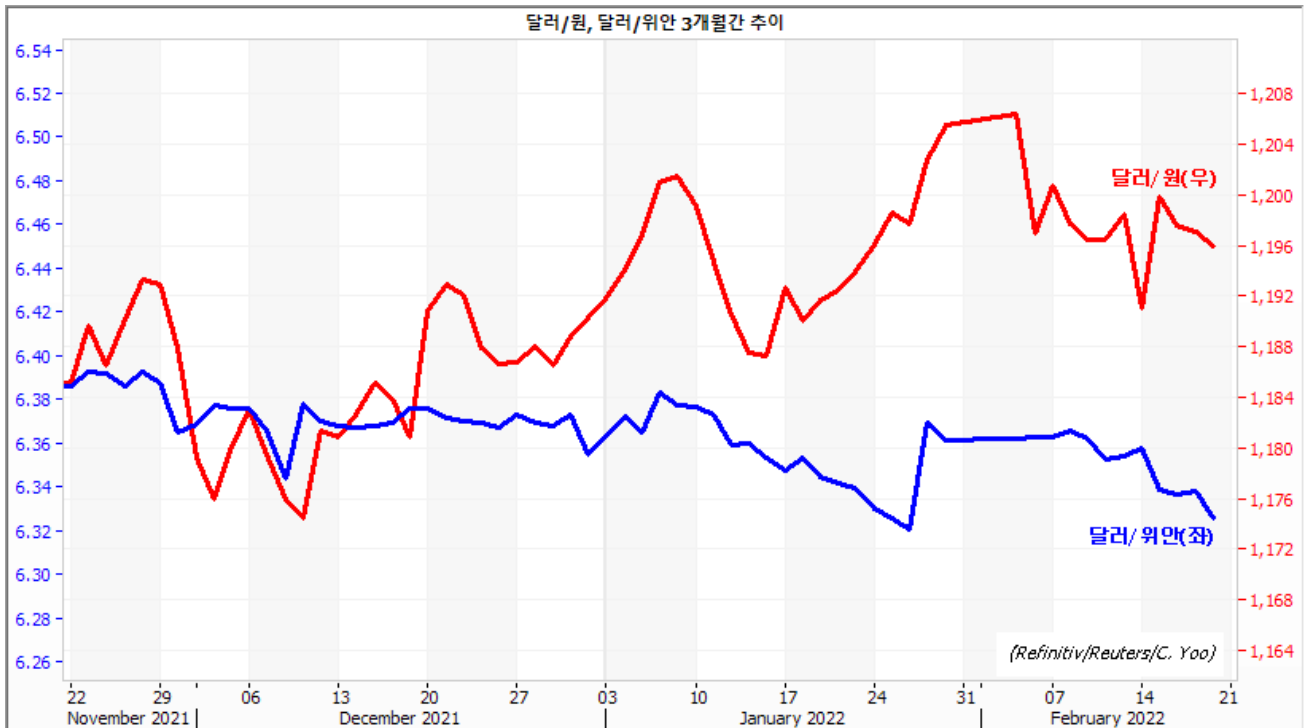
외시협과 외환 당국은 매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 시장 참가자는 "제도 변경 필요성부터 충분히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아쉽다. 앞으로의 시간도 정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 논의가 충분히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